【 해외금융뉴스: 유럽 】

Aviva, 시장내재가치평가 적용으로 주가 폭락

□ 유럽 금융감독자 그룹인 CFO포럼(Chief Financial Officers Forum)은 2008년 말까지 각 보험사가 채택하기로 한 시장내재가치평가(Market Consistent Embedded Value: MCEV)의 시행을 금융위기가 진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음.

o MCEV를 적용할 경우 각 보험사는 투자수익을 계상할 때 무위험 이자율을 사용하여야 하며, 최근과 같이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무위험 이자율이 그만큼 하락하게 되어 보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예정된 시장내재가치평가가 적용될 경우 연금상품에 치중한 보험사의 손실이 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회사채 의존도가 높은 Prudential, Legal & General, Aviva 등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측되었음.

o 애널리스트들은 MCEV를 적용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 급증으로 보험사들의 보유 자산과 준비금이 30% 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함.

□ 그러나 Aviva는 3월 4일 MCEV를 적용한 2008년 재무제표를 발표하였는데, 파이낸셜타임즈는 Aviva의 이와 같은 MCEV 도입으로 경쟁사인 Prudential, Legal & General보다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결정이었다고 밝힘.

o MCEV를 적용한 결과 Aviva의 2008년 세후 영업이익은 77억1천만 파운드의 손실을 보았는데, MCEV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영업이익은 8억8천5백만 파운드인 것으로 나타나 손실리 부풀려지는 결과를 낳았음.
o 반면 세전 영업이익 증가율은 2007년의 4%에서 2008년 10%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3월 5일 시장은 Aviva의 MCEV 적용으로 인한 손실이 예상을 뛰어넘게 되자 이에 부담을 느껴 Aviva의 주식가격이 1/3이나 폭락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로 인해 Aviva의 전략적 행동은 난관에 부딪히게 됨.

(Financial Times 3/5, Aviva 재무제표 3/4)

【 해외금융뉴스: 일본 】

니혼생명, 업계 최초로 '멘탈휴업특약' 신설한 취업불능보장보험 출시

□ 일본 최대의 생명보험회사인 니혼생명(日本生命)은 '멘탈휴업특약'을 추가한 '취업불능보장보험'을 일본 생보업계 최초로 다음달 시판할 예정임.

o 취업불능보장보험은 상해나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장기간 일하지 못하는 사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기업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니혼생명이 기업에 보험금을 지불하는 구조의 기업단체보험 상품임.

o 니혼생명이 출시하는 이번 신상품은 기존 취업불능보장보험에 멘탈휴업특약 추가시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에 걸린 사원이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만 있으면 휴업기간동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o 아울러 보험금의 수취한도 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10만엔의 사망급부금을 없애는 등, 작년 한해 판매건수 52,307건을 넘어 100~1,000억엔으로 추산되는 취업불능보장보험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니혼생명은 기대하고 있음.

□ 업계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향후 취업불능보험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경기악화로 기업들의 정리해고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업무량 증가에 따라 사원들의 정신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기업들의 취업불능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o 이번 신상품 출시에 대해 업계는 실적악화와 보험사간 경쟁심화 등의 영향으로 신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니혼생명이 발전 잠재력이 큰 취업불능보장보험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니혼생명 홈페이지, J-CAST 뉴스 3/9)

【 해외금융뉴스: 중국 】

중국 보험업계 자사운용 채널확대 논의

□ 중국 보험업계는 최근 개최된 전국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에서 정책금리 하락과 투자수익율 감소로 인해 보험업계의 경영악화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산운용채널을 글로벌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함.

o 정협위원인 허쭝생명(合衆人壽)의 따이하오(戴皓) 대표는 이번 회기동안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채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그 중 하나로 현재 중국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약관대출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함.

o 그는 개인 약관대출의 투자위험은 주식투자보다 낮고 수익율과 유동성은 국공채나 회사채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대출을 시행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는 보험업계 모두가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는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최근 법률 검토작업을 마치고 실질적인 제도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채널 확대와 관련하여 지난해 발표된 '금융 30조(정부가 제시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향을 명시한 문서)'에는 보험회사의 국채, 금융채, 회사채 매입을 장려하고, 보험회사는 채권매입 형식으로 교통, 통신, 에너지 등의 기초시설과 신농촌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보감위 자산운용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보감회는 조만간 보험회사 자산운용과 관련 '기초시설채권투자시행방법(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며, 현재 대형 보험회사로 국한된 주식투자(직접투자)를 중소형 보험회사에게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함.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1세기경제보도 3/6)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

◆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국내 지표		08년 말	09.3.5(목)	09.3.12(목)	전주대비
금리	CD금리(91일)	3.93	2.49	2.45	-0.04
	국고채(3년)	3.41	3.71	3.62	-0.09
	회사채(3년, AA-)	7.72	6.28	6.08	-0.20
환율	원/달러	1,257.50	1,545.30	1,487.40	-57.90
	원/엔(100엔)	1,384.91	1,574.43	1,522.49	-51.94
	원/유로	1,759.49	1,938.27	1,919.27	-19.00
	원/위안	184.30	225.89	217.49	-8.40
주가	KOSPI	1,124.47	1,058.18	1,128.39	6.6%
	KOSDAQ	332.05	362.16	386.59	6.7%
	KOSPI 보험지수	14,168.88	11,801.05	12,546.87	6.3%

* KOSPI 보험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100p로 하는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되며, KOSPI에 상장되어 있는 11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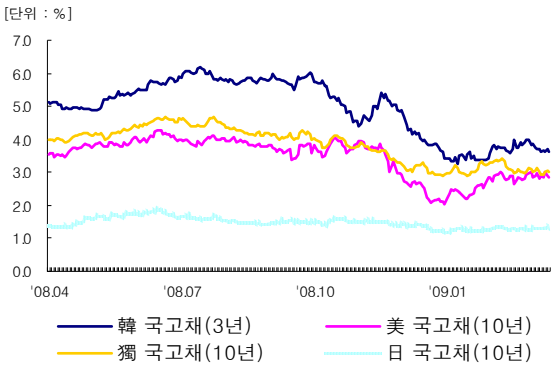
◆ 해외 주요 경제지표

해외 지표		08년 말	09.3.5(목)	09.3.12(목)	전주대비
금리	LIBOR(3개월, $)	1.43	1.28	1.32	0.04
	미국 국고채(10년)	2.21	2.81	2.86	0.04
	독일 국고채(10년)	2.95	3.02	3.01	-0.01
	일본 국고채(10년)	1.17	1.32	1.32	0.00
환율	엔/달러	90.80	98.15	97.70	-0.45
	달러/유로	1.3992	1.2543	1.2904	0.0361
	위안/달러	6.8230	6.8408	6.8389	-0.0019
주가	미국 DowJones	8,776.39	6,594.44	7,170.06	8.7%
	미국 Nasdaq	1,577.03	1,299.59	1,426.10	9.7%
	영국 FTSE100	4,434.17	3,529.86	3,712.06	5.2%
	독일 DAX30	4,810.20	3,695.49	3,956.22	7.1%
	프랑스 CAC40	3,217.97	2,569.63	2,694.25	4.8%
	일본 Nikkei225	8,859.56	7,433.49	7,198.25	-3.2%
	중국 상해종합	1,820.80	2,221.08	2,133.88	-3.9%
	대만 가권	4,591.22	4,637.20	4,754.65	2.5%
	홍콩 항셍	14,387.48	12,211.24	12,001.53	-1.7%
	DowJones 보험지수	154.83	81.01	90.89	12.2%
실물 지표	두바이유	37.02	42.88	41.19	-3.9%
	금(NYMEX)	882.05	932.60	926.63	-0.6%

DowJones 보험지수(DJTINN) 1991년 12월 31일을 100p로 하는 유통주식수 조정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되며,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글로벌 보험사 중 상위 30개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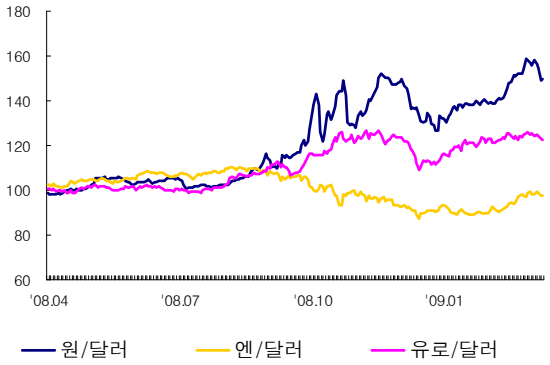
◆ 주요 지표 비교차트

<그림 1> 주요국 이자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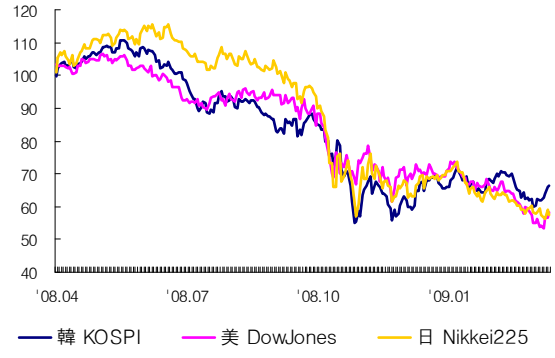
자료 : 국제금융센터

<그림 2>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



주 : 2008년 3월말 환율을 100으로 계산한 지수임.
자료 : 한국은행

<그림 3>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주 : 2008년 3월말 주가지수을 100으로 계산한 지수임.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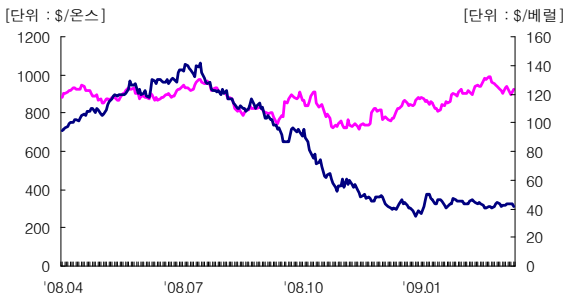
<그림 4> 한국, 미국 보험지수 추이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NYSE

<그림 5> 한국, 미국 보험지수비 추이

주 : 보험지수비=보험지수/전체지수로 계산함.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NYSE

<그림 6> 국제유가, 금 가격 추이



자료 : 국제금융센터